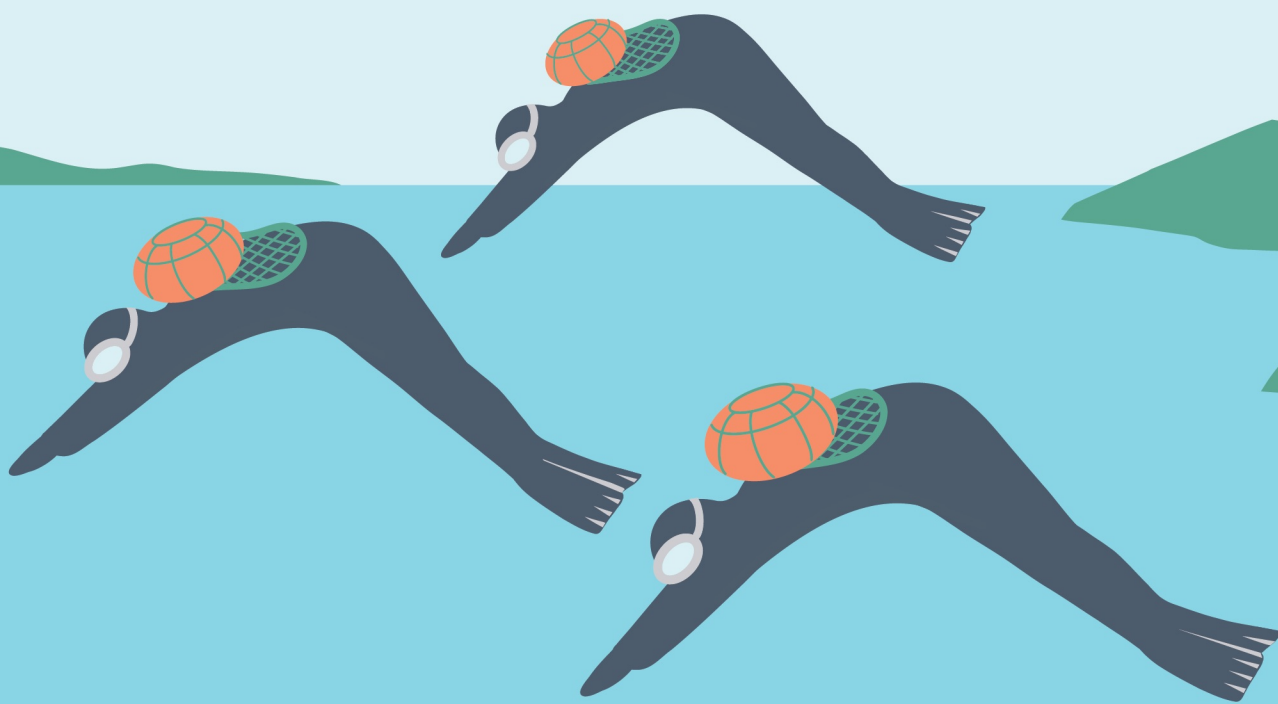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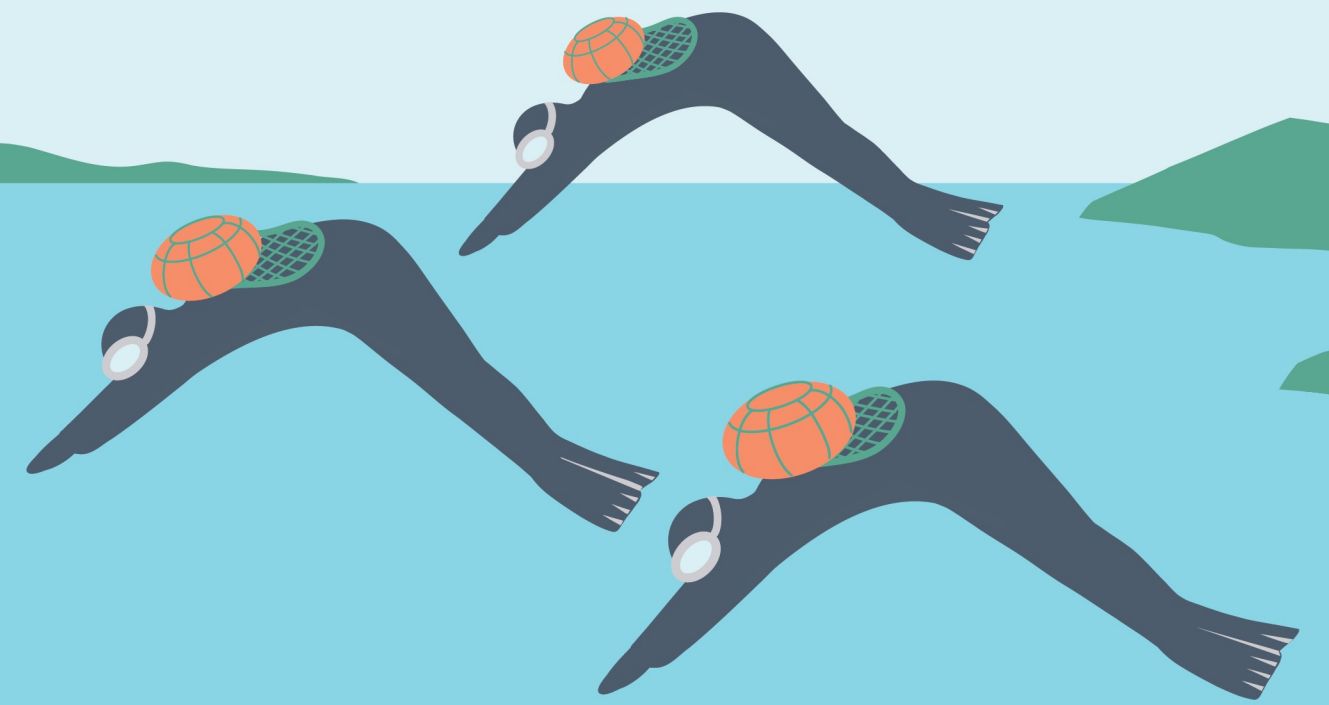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52
2025년 12월



전라남도
여수 안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 & ISSUE



‘시옷’의 표지는 전라남도 현대미술 청년작가 정주는 님이 여수 안도 이야기를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 소개 : 여수 안도에서 활동하는 세 명의 해녀들이 푸른 바다로 뛰어오르는 찰나를 담아, 섬의 빛과 호흡이 함께 살아나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CONTENTS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2 나잠어업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신이 내린 작은 섬, 바다로 향하다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9 기러기 섬의 이름을 따라 걷는 시간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12 내일은 오늘보다 편안한 하루이길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전화: 061-286-6764 *이메일: islandcenter@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5 안도의 내일을 지켜내는 일,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김대준 님

19 안도의 숨, 해녀에게서 듣다
양정숙 님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23 1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안도에서 수확하는 농·수산물

24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25 여수 안도 투어가이드

29 이야기가 머무는 이아포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31 한국섬뉴스와 함께하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도움 주신 분들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 정주는 현대미술 작가
- 김대준 여주시 안도리 이장
- 양정숙 여주시 안도리 주민
-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친환경수산과
- 하지수 (여수와 대표)
- 안도마을협동조합
- 여주시 남면사무소
-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발행처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김신연, 정태균, 김준, (여수와)

지금까지 발간된 '시윳'이 궁금하다면?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나잠어업

바다에 몸을 맡기고, 숨을 참은 채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산소통도, 기계장비도 없다. 단지 물안경과 오리발 정도를 착용한 채, 수심 깊은 바닷속에서 미역을 따고, 전복을 캐고, 소리를 찾는다. 이처럼 장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 방식이 '나잠어업(羅潛漁業)'이다. 나잠어업은 우리나라 연안 지역, 특히 제주·전남·경남·경북 등지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다.



◀ 여수 안도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안도 해녀 ©여수와

Chapter 1. 고령화된 바다, 사라지는 사람들

나잠어업인(해녀와 해남)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훌쩍 넘는다. 물속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이들의 노동은 잠수병, 저체온증, 근골격계 질환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수반한다. 위험에 비해 소득은 낮고, 사회안전망은 촘촘하지 않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전라남도에는 427명의 나잠어업인이 활동 중이다.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잠수병 진료비 지원, 도시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등이 포함 되어있다. 또한,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정착 지원, 어촌계 등록제 운영, 일부 시군의 해녀 지원 정책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생계 지원을 넘어, 전통 어업문화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Chapter 2. 바다를 살아낸 사람들의 기록

나잠어업은 지역공동체의 삶, 해양 생태계와의 공존, 여성 노동의 역사, 그리고 한국 바다문화의 정체성이 녹아있다. 특히 제주도의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제는 나잠어업을 '힘든 직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문화자산, 미래 세대가 배워야 할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계보다 몸을, 속도보다 호흡을 믿는 이 전통은 가장 느린 방식으로 가장 오래 바다를 살아낸 사람들의 기록이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 해녀가 해남이 숨을 참고 바다로 들어간다.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안도 “신이 내린 작은 섬, 바다로 향하다”

김준

섬문화답사기 저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

한반도 남쪽 바다를 남해라고 한다. 남해 너머에 제주도가 있고, 태평양으로 이어진다. 그 남해와 맞닿은 바다로 튀어나온 도시로 거제, 통영, 남해, 여수가 있다. 이들 도시로 들어온 바다는 때로는 갯벌과 만나고, 모래밭을 만들고, 때로는 바위와 부딪힌다. 그곳은 해양생물의 서식지이자, 바다 식량을 제공하는 갯밭이다. 이들 도시는 그곳에서 최근에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을 꿈꾸고 있다. 그중에 여수는 최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 배후에 섬과 바다와 만이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섬이 안도다. 섬은 작지만, 주변에 어장이 좋은 바다를 품고 있고, 안도, 이아포, 동고지, 서고지 등 네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로 뻗은 곳에 동고지와 서고지가 있고, 가운데 천연 포구에 '두명안'이 있다.

◀ 안도의 중심에 자리한 천연 포구, '두명안'



Story 1.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 오랜 역사가 고요히 머물러 있는 여수 안도

금오도와 안도를 잇는 다리를 놓다가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조개더미와 함께 유구·용기대문토기·선문토기·두립문토기·석기류·골각기류·흑요석·돌톱·유골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보관되어 있다. 무려 7천 년 전의 신석기 시대 무덤과 생활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 땅에서 발굴된 신석기 토기와 모양과 무늬가 다른 토기 몇 점이 출토되었다. 그 토기는 일본 규슈지역 조몽토기와 유사하다. 이외에 석시(돌칼)와 흑요석제 박편석기 등도 발굴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규슈지역과 활발하게 교류 했던 흔적 으로 해석된다.

▼ 안도 조개더미 1호 무덤 (자료 출처: 국립광주박물관)

또 안도 조개더미에서는 고래나 강치 등 큰 동물을 잡는 창, 그물을 사용할 때 필요한 그물추 등 공동 어로작업에 필요한 도구가 발견되었다. 조개껍데기, 고래 뼈, 물고기 뼈 그리고 돌과 동물뼈로 만든 낚시 도구도 많이 발견되었다. 당시 안도에 머물렀던 인류는 두멍안이나 이야포 같은 연안에서 식량을 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도는 일본 과 중국을 잇는 고대 항로의 기착지였다. 일본 고승 엔닌 (794-864)은 중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하다 안도에 머무 르기도 했다. 엔닌은 당나라 불교를 배우기 위해 선발된 일본 승려였다. 845년 5월 중국 적산 법화원에 머물다 신라 인의 도움을 받아 7월 20일 귀국길이 올랐다. 이 과정을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했다. 그 기록 중 847년 9월 8일 안도에 상황이 적혀있다.

“오전 4시경 바람이 없었으나 출발하였다. 포구를 얼마쯤 나가니 갑자기 서풍이 불어와 곧 돛을 올리고 동쪽으로 향했다. 마치 영묘한 이치가 있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았다. 산들이 있는 섬 사이를 가니 남북 양쪽은 다 산과 섬으로 겹겹이 겹쳐 있어 태연하게 보였다. 오전 10시가 되려고 할 무렵 안도(雁島)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이곳은 신라의 남쪽 땅으로 궁궐(內家)에서 말을 기르는 곳이다. 동쪽 가까이에 황룡사의 장원이 있으며 띄엄띄엄 인가 두세 군데가 보인다. 서남 방향에는 멀리 탐라도가 보인다.”



Story 2.

황금어장에 쏟아진 피눈물

▲ 두멍안 남쪽에 자리한 이야포

안도는 본래 동고지가 있는 동쪽 섬과 서고지가 있는 서쪽 섬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두 섬 사이로 좁은 물길인 200m가량 있었다. 남쪽 너른 바다에서 밀려온 흙과 모래와 돌이 두 섬 사이에 좁은 물목에 쌓이면서 육계사주를 만들고 급기야 물길을 막았다. 자연스럽게 안쪽은 호수나 둠벙같이 되어 천연 포구가 만들어졌다. 이곳을 두멍안이라 부른다. 안도마을 대부분은 두멍안 매립지에 지어졌다. 마을 뒤쪽으로 당숲이 자리를 잡았다.

두멍안 남쪽은 이야포다. 10년 전 이곳을 찾았을 때 멸치를 삶고 말리는 멸막이 있었다. 멸치가 드는 바다는 큰 물고기가 찾아 든다. 멸치를 잡기 위해 이야포에 많은 어선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이 그물을 놓고 올리면서 불렀던 어업요 '이야이야' 가락이 이어져 이야포라 했다고 한다. 몽돌이 파도에 구르는 평화로운 바다지만, 한국전쟁기에는 피바다가 되기도 했다.

1950년 8월 3일, 황금어장에 나타난 비행기에서 총알이 쏟아졌다. 화물선에 타고 있던 350여 명의 피난민 중 100여 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을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제주도로 가던 사람들이었다. 하루를 머물기 위해 이야포에 정박해 있던 중 갑자기 나타난 미군 폭격기의 사격을 받았다. 배에는 태극기도 꽃혀 있었고, 대응할 기미도 없는 피난민이었다. 이곳만 아니라 가까운 '두룩여'에서는 조기잡이를 하던 배에도 사격을 가해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야포에는 평화공원이 마련되었다. 폭격이후 60여 년 동안 누구도 들춰내지 않았고, 주민들도 아픔을 꺼내지 않았다.

Story 3. 풍요로운 바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촌정책들

안도는 세 명의 해녀가 산다. 처음부터 세 명이었던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물질을 할 수 없어 대부분 은퇴하고 마지막 남은 해녀들이다. 이들도 한 사람만 물질을 멈춘다면 더 계속하기 어렵다. 해녀는 물뱃이 있어야 물질을 할 수 있다. 혼자서는 물론 두 명만으로도 물질을 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라 아프면 물질을 나갈 수 없다. 제주에서 시집와 자식 셋을 오로지 물질만으로 키웠다는 양정숙 해녀는 안도 자랑이 끝이 없다. 안도는 축복받은 섬이다. 어떤 파도에도 지킬 수 있는 좋은 포구를 가졌다. 섬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8개의 바다를 가졌다. 곳과 작은 만으로 이루어져 해안선이 길고, 마을어장이 넓다. 그냥 바다가 아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할 수 있는 바다다. 그만큼 풍요롭다.

▼ 안도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양정숙 해녀 ©여수와



안도마을은 호수같은 두멍안을 품고, 이야포마을 앞 해변은 몽돌이 아름답고, 백금포는 물이 맑고 깨끗하며 모래 해변이 좋다.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된 동고지는 바다가 앞마당이며, 서고지는 작은 섬을 앞에 둔 국가어항이다. 안도는 내만과 외만의 경계에 있고, 안섬과 밖깎섬 사이에 있다. 섬과 섬 사이에 있어 안섬이라고 했던가.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바다를 탐하며 들어온 일본인 이주어촌이 안도와 거문도 고도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고지와 부도에는 고등어 가공공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아 일본으로 직접 가져갔다. 그 배들이 머물렀던 곳이 안도항이다.

▲ 맑고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가 어우러진 백금포해변

그동안 안도는 바다목장사업, 전시관, 낚시체험, 슬로푸드체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아쉽게 이러한 사업들은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어 멈추거나 방치되고 있다. 최근 안도항에 국가어항 경쟁력을 높이는 특화어항 개발사업으로 낚시공원, 낚시어선 전용 계류시설, 휴게시설 등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을 조성했다. 안도항을 해양레저, 관광, 휴양 기능을 갖춘 명소로 만들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현실과 현지 조건을 보면 운영이 녹록치 않다.

내년이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시작된다. 주제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이다. 안도에 살았던 조상들은 오래 전에 바다를 통해 일본의 섬들과 교류를 했다. 이미 섬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교류하며 미래를 잇고 있었다. 여수세계 섬박람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바다와 섬의 가치를 알리는데 이보다 좋은 장소가 있을까.

▲ 안도 동고지 하늘에서 바라본 안도와 금오도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기러기 섬의 이름을 따라 걷는 시간

안도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다와 맞닿은 마을의 결입니다. 정갈하게 이어진 어촌의 골목, 낮게 드리운 지붕들, 겨울 바람과 파도가 만나는 자리마다 오래된 이름의 흔적이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한 세기 전, 이 섬은 '기러기 안(雁)자'를 쓰는 '기러기 섬'이었습니다.

▼ 정갈한 골목과 편안한 숨결이 머무는 안도리 마을 ©여수와



▲ 잔잔한 물빛을 품은 이야포 ©여수와

이야포의 잔잔한 물빛도, 해안에 스며드는 바람도, 섬 초입에서 마주하는 포구의 고요함도 모두 그 시절의 결을 이어옵니다. 해안은 계절마다 색을 바꾸고, 바다는 파도 결을 따라 은빛과 회색빛, 짙은 남빛 으로 표정을 달리 합니다. 마을 길을 따라 걷다보면 간간히 들려오는 어선의 엔진 소리와 골목 어귀에서 건네는 할머니들의 인사 한마디가 이 섬의 시간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 동고지마을 선착장에서 어업에 나서는 주민

특히 동고지마을과 서고지마을은 안도의 어제와 오늘 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동고지는 동근 해안선을 따라 집들이 웅기종기 자리한 오래된 마을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안도의 일상을 품고 있습니다. 서고지로 이어지는 길에는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높이가 하루의 표정처럼 담겨 있습니다. 두 마을을 잇는 길을 걷다 보면 바다와 삶이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서 이어져 있는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부터 태풍이 오면 수많은 배가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어민들은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서로의 하루를 챙겼습니다. 지금도 안도는 이름 그대로 '편안함(安)'을 품은 섬처럼 찾아오는 이들에게 심을 내어줍니다.



▲ 바다 곁에 웅기종기 자리한 동고지마을 ©여수와



▲ 붉은 노을빛으로 물드는 서고지마을

아침 해가 물결 위로 번질 때, 몽돌 사이로 파도의 소리가 잔잔히 퍼질 때, 그리고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 포구가 붉게 물들 때, 섬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얼굴을 갖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바다의 색으로 완성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안도입니다. 동고지마을에서 서고지마을을 지나 이야포까지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안도의 시간이 발끝에서 차분히 쌓이는 감각이 전해집니다. 섬이 품어온 기억과 바람의 방향, 바다가 만들어낸 하루의 흐름까지. 사진 속 한 장면 한 장면은 '기러기 섬'이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펼쳐 보입니다.

“안도에 닿는 순간, 이 섬의 시간은 나를 천천히 품어줍니다.”



◀ 포근한 아침 해를 맞이한 동고지마을 ©여수와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편안한 하루이길

▲ 이른 아침 조업을 준비하는 서고지 선착장 ©여수와

안도의 하루는 바다를 향한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선착장에는 바람과 파도의 소리만 낮게 머뭅니다. 이른 새벽부터 어민들은 배 위를 오가며 오늘 사용할 그물과 어구를 정리하고 포구 주변에서는 동네 사람들끼리 짧은 인사를 건네며 하루의 첫 대화를 엮습니다. 바다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늘 변화가 숨어 있어 바람의 세기와 물때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 이른 아침, 서로의 하루를 건네는 안도 해녀들 ©여수와

아침이 밝아오면 마을도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골목을 따라 난 작은 길에는 낮은 돌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바람을 타고 건강한 바다의 향기가 마을 안쪽까지 번져 옵니다. 포구 한켠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해녀들이 바다에 들 준비를 합니다. 차가운 물을 앞에 두고도 서로 안부를 묻는 손짓과 웃음이 오가고 그 모습이 마을의 아침을 더욱 단단하게 밝혀 줍니다. 이 모든 장면이 안도 주민들의 '오늘'을 차곡차곡 채워갑니다.



섬의 일상에서 가장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다림'과 '함께함'입니다. 바람이 찾아들기를 기다리고, 물때가 맞기를 기다리고, 어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안도의 하루는 조용한 인내 속에서 이어집니다. 마을의 일들은 대부분 서로의 손길로 완성됩니다. 누군가는 밭을 가꾸고, 누군가는 포구에서 어구를 살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을회관에서 이웃과 하루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작은 섬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 서로를 향해 있고 그 안에서 관계의 깊이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 '기다림'과 '함께함'이 공존하는 안도리마을 ©여수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안도의 시간은 한층 더 느긋해집니다. 가두리 양식장 위로 철새들이 낮게 날아와 쉬어가고 포구 근처에서는 배에서 내린 어민들의 발걸음이 이어 집니다. 마을 골목마다 저녁 밥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생선 굽는 냄새, 국이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천천히 퍼져 나갑니다. 하루의 노동이 고요한 침으로 옮겨가는 시간, 안도의 오후는 그렇게 삶의 결을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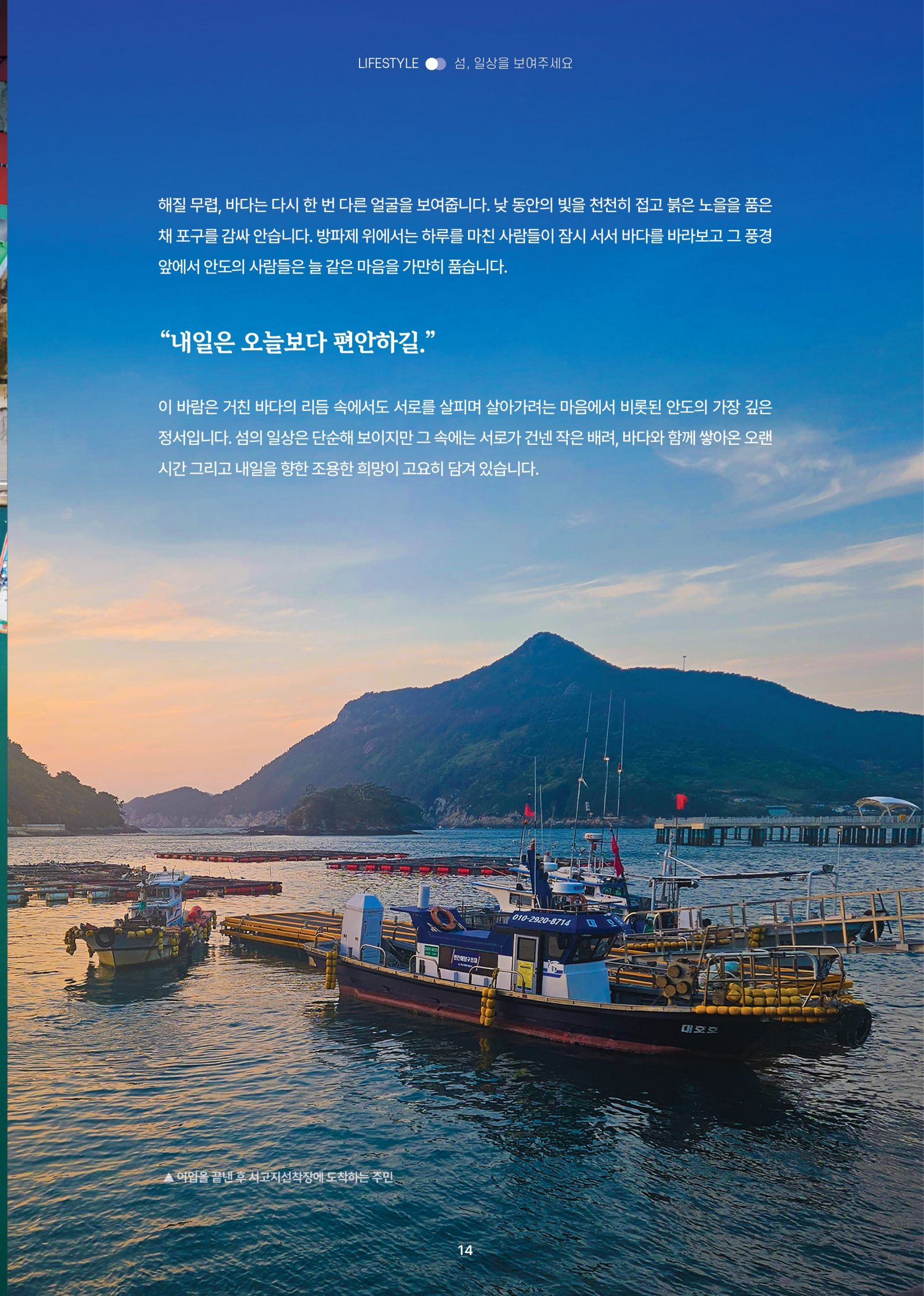


▲ 가두리 양식장에서 쉬고 있는 철새들 ©여수와

해질 무렵, 바다는 다시 한 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낮 동안의 빛을 천천히 접고 붉은 노을을 품은 채 포구를 감싸 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는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잠시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그 풍경 앞에서 안도의 사람들은 늘 같은 마음을 가만히 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편안하길.”

이 바람은 거친 바다의 리듬 속에서도 서로를 살피며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안도의 가장 깊은 정서입니다. 섬의 일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가 건넨 작은 배려, 바다와 함께 쌓아온 오랜 시간 그리고 내일을 향한 조용한 희망이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 어업을 끝낸 후 서코지선착장에 도착하는 주민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도의 내일을 지켜내는 일,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김대준 안도리 이장



Q1. 안도와의 인연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저는 안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여수시내에서 생활했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이 바다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며 바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바람과 물결에 맞춰 움직이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것은 고향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큼니다. 섬에는 어르신이 많고, 함께 손을 모아야 이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마을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함께 안도의 시간을 차분히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천혜의 자연 피항지를 품은 안도 ©여수와

Q2.

‘안도(安島)’라는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우리 섬은 1915년까지 ‘기러기 안(雁)’자를 써서 ‘기러기 섬’이라 불렸습니다. 이후 행정 개편을 거치며 ‘편안할 안(安)’자로 바뀌었고, 이 이름에는 섬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전부터 안도는 태풍이 불면 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던 안전한 포구였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마을 안쪽 바다는 잔잔함을 지켜 주며 사람들에게 심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섬이 품어온 본래의 ‘안도’의 뜻, 사람이 편안히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는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검은 몽돌해변이 특징인 이야포해변 ©여수와

Q3. 안도의 가장 큰 자량은 무엇인가요?

안도는 바다가 품은 넓은 가능성을 지닌 섬입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자연 피항지이자, 자갈밭 해수욕장과 백사장 해수욕장, 풍부한 어장, 아름다운 산세와 해안선을 고루 갖춘 곳입니다. 해안선은 약 29km에 이르며, 그만큼 다양한 생태 환경이 살아 숨 쉽니다. 섬 곳곳에는 오래된 민속과 문화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안도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이곳에서는 늘 공동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마을의 결정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앞에 섭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균형이 안도를 단단히 지켜주는 힘입니다.

Q4. 요즘 안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도가 지금 가장 집중하는 일은 '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젊은 세대가 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안도가 지닌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해녀·해남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화는 바다 생태를 보전하며 자원을 순환시키는 매우 건강한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 어장은 다시 힘을 얻고, 마을도 함께 활력을 찾게 됩니다. 제주에서는 해녀 지원 정책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지만, 전라남도에는 아직 이런 기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도가 먼저 길을 열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의 미래는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차분히 쌓아가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안도 앞바다에서 어업을 이어가는 해녀와 어민 ©여수와



▼ 신비로운 기운과 오랜 역사가 공존하는 당산숲 ©여수와

Q5. 안도에서 오래도록 지켜져 온 공간이 있을까요?

당숲은 오랜 시간 마을의 중심이 되어온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세대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돌보며 특별하게 여겨 왔습니다. 지금은 마을 사람과 여행자가 함께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그 뿌리에는 오랜 세월이 쌓아온 공동체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폐교된 여안초등학교는 '안도기러기 캠핑장'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고, 그 한켠에는 안도의 유물과 역사를 전시한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은 안도를 오래 기억해 온 사람과 새롭게 안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래된 시설을 정비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살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오래된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도기러기 캠핑장 안에 마련된 '안도마을 스토리' 전시장

에디터 이야기

Editor's Note

안도를 지킨다는 마음을 곁에서 느끼다

김대준 이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도가 어떤 방식으로 '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녀·해남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가려는 시도, 자연을 존중하며 어장을 되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바다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곳"이라는 그의 말은 안도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섬의 어른이 지켜온 이 마음이 이어질 때, 안도의 내일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섬을 찾는 모두가 이 마음에 조용히 동참하길 바랍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도의 숨, 해녀에게서 듣다

양정숙 안도해녀



Q1. 안도 바다와 인연을 맺게 된 순간을 들려주세요.

제 인생의 절반은 바다와 함께했습니다. 제주 한림에서 태어나 여수로 시집와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질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안도에 발을 디딘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해녀가 열둘도 넘게 있었고, 물질을 하며 서로의 하루를 챙기던 시절이었죠. 해녀로 살아가며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집안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제게 삶을 키워준 울타리이자 엄마 품 같은 곳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깊은 중심이 됩니다.



▲ 안도 앞바다에서 작업 중인 안도 해녀들 ©여수와



▲ 숨을 고르고 잠수를 준비하는 안도해녀 ©여수와

Q2. 해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바다에 드는 순간은 어떤가요?

해녀의 하루는 늘 물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물이 좋은 시간에 바다에 들고, 그 흐름에 하루가 맞춰집니다. 물속으로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몸은 곧바로 바다의 리듬을 탑니다. 겨울철에는 바다가 유리처럼 차가워 손끝이 얼얼하고, 이가 서로 부딪힐 만큼 온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숨을 고르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큰 전복을 만나면 숨을 쉬기 위해 몇 번이고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조류의 흐름과 내가 방금 뿜었던 물방울의 방향까지 계산해 전복의 위치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올라올 길을 먼저 그려두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 숨이 찰 때마다 오르고, 다시 내려가고, 그 시간을 반복합니다. 결국 전복을 손에 쥐는 순간, 바다는 언제나 제게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Q3. 물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오래 남는 순간은 물속에서 혼자 마주한 장면들입니다. 이른 새벽, 햇빛이 물결을 따라 내려오면 바닷속이 거울처럼 반짝입니다. 조류가 잠잠해지는 찰나, 바닥이 흰히 보이고 전복이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의 고요함은 말로 다 담기 어렵습니다. 바다는 늘 거칠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싶어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마음에 담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제가 이 일을 오래 사랑해온 이유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 오늘 바다에서 건진 수확물을 선별하는 안도 해녀들 ©여수와

Q4. 해녀로 살아가며 가장 자랑스러운 때는 언제인가요?

바다에서 돌아와 맨손으로 채취한 것을 펼쳐 놓는 순간, 제 하루가 단단하게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바다에서 얻은 것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여유입니다. 무엇보다 바다에서 가꾼 제 삶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 제일 큰 자부심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했다." 해녀로 살아온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 바다의 손길을 이어가는 안도 양정숙 해녀 ©여수와



▲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참소라를 살피는 양정숙 안도해녀 ©여수와

Q5. 바다를 지키는 마음, 그리고 안도의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바다는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곳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대할 때는 조심스럽고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지킨 바다는 내일도 같은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물질을 해왔어요. "바다는 스스로 지키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안도에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이 바다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으면 합니다. 선배 세대로서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깨끗한 바다는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약속이라는 것. 지금 안도에는 70대 해녀 세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이어가고 싶은 분이려면, 언제든 안도는 열린 바다입니다. 젊은 해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에디터 이야기

Editor's Note

바다는 엄마의 품처럼 편안해요

안도 해녀 양정숙님의 이야기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의 차가움, 숨을 고르며 다시 내려가는 고단한 리듬, 전복 하나를 만나기 위해 조류의 흐름과 물방울의 방향까지 계산하는 치열한 집종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은 노동을 넘어 삶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바다는 속을 풀어주는 공간이었고, 가족을 지켜낸 터전이었으며, 다음 세대에게 건네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바다가 엄마 품속 같애." 그 말은 안도의 바다를 품고 살아온 한 해녀의 고백이자, 이 섬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깊고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안도에서 수확하는 농·수산물



알면 쓸데없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쓸모 가득!
KOREA-섬 잡학사전 '알쓸K-섬잡'. 이번 달의 주제는 **어선번호판**입니다.
섬 여행을 하다 보면 선착장에서 쉴 새 없이 오가는 어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번호판만 봐도 그 배의 정보가 전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수 안도 서고지선착장에서 만난 어선을 예로 설명해드릴게요.

▼ 여수 안도 서고지선착장에서 만난 어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선번호 부여방법 보러가기

어선 번호판 읽는 법

- ① 2004006 어선이 언제, 어떤 지역에서 등록되었는지 알려주는 번호
- ② 6461309 바다 위에서 이 배가 누구인지 구분하는 고유 번호
- ③ 연안통발 (3.00톤) → 연안통발: 가까운 해역에서 통발을 놓아 조업하는 어선
→ 3.00톤: 바다의 일을 건디는 배의 규모

이 번호판 하나만 보아도 [여수 안도 앞바다에서 통발로 어획하는 3톤급 어선입니다] 라는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조합 속에는 안도 바다를 오가는 한 어선의 시간표가 담겨 있습니다. 등록 시점과 조업 방식, 그리고 어떤 바다를 일구는지까지 작은 번호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행자에게는 새로운 발견이 되고, 섬 주민에게는 일상 속 친근한 표식이 됩니다. 선착장에서 만난 번호판 하나가 안도의 바다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되어줍니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여수 안도 투어가이드

*2025년 11월 기준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실시간 안도 날씨 확인 ▶



안도 기본현황

150

가구수

216명

인구

안도중계민원처리소

안도보건진료소

3.96 km²

면적

29 km

해안선 길이

여수남면 우체국 안도출장소

주요 관공서

여객선 운항정보 | 여수연안여객선에서 출발할 경우

- 운항사 / 여객선 : (유)한림해운 / 금오고속페리호(차도선)
- 비용(편도)
 - 성인 : 20,250원 / 승용차 : 40,250원
 - * 추후 유가변동 시 한 달 단위로 요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요시간 : 약 1시간 40분
- 전화번호 : 061-666-809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과 함께하는
내일 안도 운항정보를
확인해 볼까요? ▶



| 항차 | 여수 | 여천 | 유송 | 우학 | 안도 | 서고지 | 역포 |
|----|----------|---------|---------|------------------------------------|---------|---------|---------|
| | | | 금오도 | | | | 연도 |
| 1 | 06:20 출항 | 07:15 착 | 08:50 착 | 07:30 착 <small>*필요일만 기항</small> | 07:40 착 | 07:50 착 | 08:00 착 |
| | 10:05 도착 | 09:00 발 | 08:50 발 | 08:40 발 | 08:25 발 | 07:50 발 | 08:05 발 |
| 2 | 14:00 출항 | 14:55 착 | 15:05 착 | 15:15 착 | 15:30 착 | 15:40 착 | 15:55 착 |
| | 18:00 도착 | 17:00 발 | 15:05 발 | 16:25 발 | 16:15 발 | 15:40 발 | 16:00 발 |
| | 14:30 출항 | 15:25 착 | 15:45 착 | 15:55 착 | 16:10 착 | 16:15 착 | 16:25 착 |
| | 18:30 도착 | 17:20 발 | 15:45 발 | 17:00 발 | 16:40 발 | 16:15 발 | 16:30 발 |

*동계: 9월 15일 ~ 4월 14일 / 하계: 4월 15일 ~ 9월14일



※ 신기항과 백야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이용하시면 금오도를 거쳐 차량으로 안도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정보 | 여수 돌산 신기항에서 출발할 경우

- 운항사 / 여객선 : (유)한림해운 / 한림페리 9호(차도선)
- 비용(편도)
 - 성인 : 5,900원 / 승용차 : 13,000원
 - * 추후 유가변동 시 한 달 단위로 요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요시간 : 약 25분
- 전화번호 : 061-644-9877

| 항차 | 여수 돌산 신기항 출발 | 금오도 여천항 출항 |
|----|--------------|------------|
| 1 | 07:45 | 08:20 |
| 2 | 09:10 | 09:40 |
| 3 | 10:30 | 11:00 |
| 4 | 12:00 | 13:00 |
| 5 | 동계 14:00 | 14:30 |
| | 하계 14:30 | 15:00 |
| 6 | 동계 15:50 | 16:20 |
| | 하계 16:00 | 16:30 |
| 7 | 동계 17:00 | 17:30 |
| | 하계 18:00 | 18:30 |
| 8 | 동계 18:30 | 19:00 |
| | 하계 19:30 | 20:00 |
| 9 | 동계 19:30 | 20:00 |
| | 하계 20:30 | 21:00 |

*동계: 9월 15일 ~ 4월 14일 / 하계: 4월 15일 ~ 9월14일

여객선 운항정보 | 여수 화정면 백야도항에서 출발할 경우

- 운항사 / 여객선 : 신아해운 / 한려페리(차도선)
- 소요시간 : 약 40분
- 비용(편도)
- 전화번호
- 성인 : 7,500원 / 승용차 : 15,000원
- 백야 : 061-665-656
- * 추후 유가변동 시 한 달 단위로 요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함구미 : 061-665-6464

백야 - 금오도(함구미) 방면 | 평일운항

| | 한려페리 7호 | 백야 | 개도(화산) | 금오도(함구미) | 금오도(함구미) | 개도(화산) | 백야 |
|-----|---------|-------|--------|----------|----------|--------|-------|
| 1항차 | 도착 | | 07:42 | 07:59 | | 08:50 | 09:20 |
| | 출발 | 07:30 | 07:45 | | 08:30 | 09:00 | |
| 2항차 | 도착 | | 10:12 | 10:29 | | 12:45 | 13:05 |
| | 출발 | 10:00 | 10:15 | | 12:25 | 12:50 | |
| 3항차 | 도착 | | 13:35 | 14:00 | | 15:05 | 15:25 |
| | 출발 | 13:20 | 13:40 | | 14:45 | 15:10 | |
| 4항차 | 도착 | | 16:05 | 16:30 | | 16:55 | 17:20 |
| | 출발 | 15:50 | 16:10 | | 16:35 | 17:00 | |

백야 - 금오도(함구미) 방면 | 10.16 ~ 3.31 동계 주말

| | 한려페리 7호 | 백야 | 개도(화산) | 금오도(함구미) | 금오도(함구미) | 개도(화산) | 백야 |
|-----|---------|-------|--------|----------|----------|--------|-------|
| 1항차 | 도착 | | 07:42 | 07:59 | | 08:30 | 08:50 |
| | 출발 | 07:30 | 07:45 | | 08:10 | 08:35 | |
| 2항차 | 도착 | | 09:22 | 09:39 | | 10:20 | 10:40 |
| | 출발 | 09:10 | 09:25 | | 10:00 | 10:25 | |
| 3항차 | 도착 | | 11:15 | 11:40 | | 12:45 | 13:05 |
| | 출발 | 11:00 | 11:20 | | 12:25 | 12:50 | |
| 4항차 | 도착 | | 13:35 | 14:00 | | 15:05 | 15:25 |
| | 출발 | 13:20 | 13:40 | | 14:45 | 15:10 | |
| 5항차 | 도착 | | 16:05 | 16:30 | | 16:55 | 17:20 |
| | 출발 | 15:50 | 16:10 | | 16:35 | 17:00 | |

백야 - 금오도(함구미) 방면 | 4.1 ~ 10.15 하계 주말

| | 한려페리 7호 | 백야 | 개도(화산) | 금오도(함구미) | 금오도(함구미) | 개도(화산) | 백야 |
|-----|---------|-------|--------|----------|----------|--------|-------|
| 1항차 | 도착 | | 06:55 | | | 7:00 | 07:15 |
| | 출발 | 06:40 | | | | | |
| 2항차 | 도착 | | 07:42 | 07:59 | | 8:30 | 08:50 |
| | 출발 | 07:30 | 07:45 | | 08:10 | 8:35 | |
| 3항차 | 도착 | | 09:22 | 09:39 | | 10:20 | 10:40 |
| | 출발 | 9:10 | 09:25 | | 10:00 | 10:25 | |
| 4항차 | 도착 | | 11:15 | 11:40 | | 12:45 | 13:05 |
| | 출발 | 11:00 | 11:20 | | 12:25 | 12:50 | |
| 5항차 | 도착 | | 13:35 | 14:00 | | 15:05 | 15:25 |
| | 출발 | 13:20 | 13:40 | | 14:45 | 15:10 | |
| 6항차 | 도착 | | 16:05 | 16:30 | | 16:55 | 17:20 |
| | 출발 | 15:50 | 16:10 | | 16:35 | 17:00 | |

마을버스 2호차 운행 정보

- 비용 : 2,000원 (성인)
- 전화번호 : 061-692-8278 / 010-9117-5131

| 운행 | 출발지 | 경유지 | | | | | | | | | 도착지 |
|----|-------|-------|-------|-------|-------|-------|-------|-------|-------|-------|-------|
| 1 | 여천터미널 | 송고 | 함구미 | 송고 | 대유 | 소유 | 우실삼거리 | 우학보건소 | 우학터미널 | | |
| | 09:40 | 09:43 | 09:46 | 09:50 | 09:55 | 09:56 | 10:00 | 10:01 | 10:02 | | |
| 2 | 우학보건소 | 심포 | 미포 | 소실포 | 장지 | 서고지 | 안도 | 소실포 | 미포 | 심포 | 우학보건소 |
| | 12:50 | 12:52 | 12:53 | 12:55 | 12:57 | 13:02 | 13:05 | 13:07 | 13:08 | 13:09 | 13:10 |

숙박 및 식당 정보

|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박민박 | 여수시 남면 안도안길 13 | 010-3622-8247 | 해변민박 | 여수시 안도해변길 21 | 010-3621-0891 |
| 선영민박 | 여수시 남면 안도안길 36-1 | 010-9515-9338 | 안도모텔 | 여수시 남면 안도해변길 25 | 010-3633-9378 |
| 백송펜션민박(식당) | 여수시 남면 안도안길 19 | 010-3620-9391 | 조은민박 | 여수시 안도해변길 43-1 | 010-5910-4781 |
| 제일민박(식당) | 여수시 안도해변길 47 | 010-9443-5772 | 일번지민박(식당) | 여수시 남면 안도해변길 9-1 | 010-3641-8854 |
| 안도펜션민박(식당) | 여수시 안도해변길 13 | 010-2073-9363 | | | |



▼ 여수 안도 이야포에서 만난 바다 ©여수와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머무는 이야포

이야포에 닿는 순간 가장 먼저 귀를 스치는 것은 파도와 몽돌이 만들어내는 작은 울림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둥근 돌과 돌이 부드럽게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고, 여행자는 그 울림 속에서 자연스레 마음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햇살은 물결을 따라 색을 바꾸고 몽돌은 은빛을 띠며 반짝입니다. 오래 바라볼수록 이야포는 마음을 가만히 감싸는 힘을 지닌 곳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해변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1950년 8월 3일, 6·25전쟁 중이던 그날 여수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사격해 민간인 250여 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항로였지만 그날의 바다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오랫동안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채 잊혀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기억과 유족, 주민들의 증언이 하나둘 모여면서 세상은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2010년 국가 진실규명 기관은 이 일을 '미군 폭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이야기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제 자리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조사 ▲ 여수MBC News보러가기(2025.05.28. 방송)



▲ 이야포평화공원에 자리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기억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위령제와 추모 의식, 해변 곁에 자리한 작은 위령공원과 평화의 공간은 이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이야포와 안도리 일대에서는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제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관계자들은 땅을 여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잊었던 시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앞으로 유해가 발견되면 감식과 보존 절차를 거쳐 진상 규명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의 이야포는 조용한 여행지이자, 과거와 현재가 차분하게 겹쳐지는 기억의 장소입니다. 해변을 걷다 보면 자연은 상처를 덮지 않고 그대로 품어낸다는 사실을 잔잔하게 들려줍니다. 이야포 평화공원에 오르면 몽돌해변과 이어지는 풍경, 그리고 섬 주민들의 정갈한 일상까지 서로의 시간이 포개지며 이야포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야포는 단순히 풍경을 즐기는 곳을 넘어 '기억과 오늘이 함께 머무는 장소', 섬 역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바다 위로 스친 슬픔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시간이 고요히 쌓여 있는 곳. 파도의 걸, 몽돌의 소리, 바람의 향기 속에 오래 남은 이야기들. **이야포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안도의 시간을 함께 걷는 일입니다.**



▲ 이야포평화공원 산책로에 자리한 이야포평화탑 ©여수와



▲ 파도와 몽돌 소리가 겹겹이 울려 퍼지는 이야포해변 ©여수와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전남도, 내년 '전남 섬 방문의 해' 추진... 섬박람회 성공·섬 관광 활성화

▶ 코레일 크루즈·'반값 섬 여행' 등 특화 상품 개발... 섬 관광 붐 조성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내년엔 전남도가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추진하며 섬 관광 확대에 본격 나선다. 전국 섬의 60%가 물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박람회 흥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전남 대표 섬 26곳을 '미식 관광', '힐링 체험', '워케이션(일하면서 즐기는 휴가)', '섬 생활·문화 체험' 등 8개 주제로 구분해 여행사와 함께 관광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각 프로그램별로 섬 숙박 할인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섬 관광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속열차(KTX-SRT)와 크루즈를 연계한 1박 2일 코스의 '레일 크루즈'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구독자 1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88명)를 모집해 '섬 푸드 챌린지', '섬 캠핑', '섬 캣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준성 기자 | 2025. 12. 08.



여수시, 정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 국비 1천억 포함 총사업비 1조 980억 규모... 사업 본격 착수

전남 여수시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여수시는 이번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000억 원, 도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해수부 공모사업은 기존 해양관광 인프라와 민간투자를 연계해 지역 기반의 해양레저·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 시흥, 인천 송도, 충남 보령, 부산 사하구, 전북 고창, 강원 양양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사업은 2030년까지 재정사업 2000억 원과 민간투자 8980억 원 등 총 1조 980억 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재정사업에는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레저지원센터 ▲돌산 우두리 오션푸드스트리트 터미널(회타운 부지) ▲경도 복합크루즈환승센터 ▲경도-무술목 해역 플로팅 웰니스파크 ▲무술목 해수욕장 아쿠아마린파크 등 5개 권역이 포함된다.

문훈미 기자 | 2025. 12. 09.



진도 상조도~옥도 잇는 연도교 착공... 2028년 완공 목표

▶ 4개 섬 하나로 연결... 섬 주민 생활 기반 획기적 개선

전남 진도군이 '상조도-옥도 연도교' 건설공사의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착공에 돌입한다. 8일 개최된 기원제에는 진도군수, 진도군의회 의장, 진도군의회 의원, 지역 단체,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공사의 안전과 성공적 추진을 염원했다. '상조도~옥도 연도교 건설공사'는 섬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1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상조도와 옥도를 잇는 140미터의 해상교량과 1740미터의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8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도교가 완공되면 상조도, 옥도는 물론 하조도, 나배도 등 인근 섬 주민들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김준성 기자 | 2025. 12. 08.



여수~거문 항로 여객선, 15일 정상운항... 파행 막았다

▶ 여수시·케이티마린, 연료비·선원 인건비 가불 지원안에 잠정 합의
▶ "섬 주민 이동권 훼손 안 된다"... 재판 결과 따라 정산 방식 검토

여수~거문 항로의 유일한 여객선 '하멜호'가 중단 위기에 놓였던 운항을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어가게 됐다. 전남 여수시와 하멜호 선사 케이티마린은 10일 운항 지원을 둘러싸고 고조됐던 갈등을 가불 지원 방식으로 풀기로 하며 극적 합의를 이뤘다. 섬 주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양측을 한 걸음씩 물러서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이날 케이티마린이 "내년 지원금을 가불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공식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제안된 가불금은 5억 원 규모로, 연료비와 선원 인건비 총량이 핵심이다. 양측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불금으로 연료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상 운항을 지속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진형 기자 | 2025. 12. 12.



신안교통재단, 여객선 안전대응 역량강화 교육

▶ 여객선 승무선원, 매표원 등 117명 대상

전남 신안군 (재)신안교통재단은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 군청 공연장에서 2025년도 하반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단에 소속된 일반직원과 더불어 여객선 승무선원, 매표원, 도선 및 행정선 선장 등 현장 인력을 포함한 총 117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핵심 축인 중대재해처벌법, 친절, 안전대응 역량을 모두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안전문화뿐만 아니라 친절·봉사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하며, 재단이 고객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준성 기자 | 2025. 12. 05.



"여객선은 섬 주민의 생존 수단" 윤준병 의원,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 4개 섬 하나로 연결... 섬 주민 생활 기반 획기적 개선

섬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공영항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준은 기자 | 2025. 12. 8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